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4.23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테크 강세에 S&P500·나스닥 '사상 최고'

- 미 4대 지수 일제 강세: S&P500·나스닥 사상 최고 경신
- 유가 재상승: 항공·에너지·원자재 비용 압력 ↑
- 테슬라·반도체·AI 수혜주 실적 서프라이즈, 위험자산 선호 강화

Summary

미국 증시는 미·이란 휴전 연장과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강세 마감함. 다우는 0.69% 오르며 4만9490선에 근접했고, S&P500은 1.05% 상승하며 7137.90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기술주 중심 나스닥은 1.64% 급등해 2만4657.57로 최고치를 새로 썼고,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2000도 0.74% 오르며 위험자산 선호 확산을 반영함.

미국-이란 긴장

미국과 이란 간의 '한시적 휴전'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휴전 기한을 연장함. 이에 대해 Axios는 최대 36~72시간 밖에 주지 않았다고 밝히며, 새로운 평화 회담이 이르면 금요일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함. 이스라엘 언론 역시 "휴전 연장 시한은 26일 만료"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함. 그러나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연장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휴전 연장 시점'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내용이 재생산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장 마감 이후 FoxNews 인터뷰에서 "이란과 분쟁 종식을 위한 일정표는 현재 없다"고 밝힘. 한편,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을 진전 시키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해제와 위협"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지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의 긴장감도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며 국제 유가가 상승하였는데,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은 페르시아만과 주변 해역에서 MSC 소속 선박 2척과, 그리스 국적 선박 1척을 나포했다고 밝힘.

반도체 강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 대비 2.7% 상승한 9,909p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또한 16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은 1994년 지수 발표 이래 최장 상승 기록임. Arm 홀딩스 +11%, 샌디스크 +8.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8.4%, AMD +6.9% 등 상승 마감. 이는 AI 수요 급증 속에 메모리 및 비메모리 공급이 심각한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인텔과 AMD는 하반기에 메모리 가격을 8~17%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Big Brother의 귀환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사모펀드 지분 니수에 쏟아부은 $21B 규모의 지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전략

산업에 개입한 최대 규모라고 밝힘. 트럼프 행정부 제2기 시작 이후 미국 정부는 희토류, 반도체 및 기타 핵심 산업 분야의 공급망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16건의 투자 협정을 발표함. 특히 16건 중 9건은 공급망 보호와 기술 패권 강화 목적의 핵심 광물 투자에 집중됨. MP 머티리얼즈와의 계약에서 국방부는 10년간 자석 100% 구매를 보장하기도 하였고, US 스틸 투자 시 '황금주(golden share)' 확보로 주요 의사결정 거부권을 보유하기도 함.

공급망 및 물가 우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가 세계 경제의 하방위험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유럽 내 최대 항공사인 독일의 루프트한자는 연료 절감을 위해 5~10월 사이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약 2만 편의 항공편을 취소하였고, KLM 및 에어뉴질랜드의 경우 수익성이 낮은 유럽 내 노선을 축소하거나 운항 회수를 줄이고 있음. 특히 유럽연합(EU)은 역내 연료 재고가 6주분에 불과하다는 경고에 따라, 실시간 수급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 항공유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상 비료 교역량의 약 3분의 1 공급도 차단된 상황.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질소 비료인 요소의 경우, 전쟁 이전 톤당 500달러 미만에서 현재 약 850달러로 75% 이상 상승. 특히 북반구를 중심으로 봄철 파종 시기에 비료 공급이 중단되면서 생산량 급감에 대한 우려가 커짐. 세계식량계획(WFP)은 "전 세계적인 식량 안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올해 중반까지 약 4,500만 명의 추가 기아 인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함. 이는 더 광범위하게 물가 상승 압력을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6% 오르며 4년 만에 최대폭 상승하였고, 석유류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월간 상승을 기록함.

한편, 거시 측면에서는 미 모기지은행협회(MBA)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6.35%로 3주 연속 하락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7.9% 급증하는 등 금리 완화 기대가 서서히 실물·부동산 수요로 이어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EIA 주간 재고 통계에서는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192만 배럴 증가한 반면, 휘발유·디젤 재고는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해 공급 불균형과 정제 마진 확대 신호를 동시에 보여줌. (다우 +0.69%, 나스닥 +1.64%, S&P500 +1.05%, 러셀2000 +0.74%)

특징종목

반도체 16거래일 연속 상승

아마존 (+2.2%)은 AWS 매출 30% 성장과 Anthropic의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 이상 AWS 투자 약속, 자체 AI 플랫폼 Amazon Leo 등 AI·클라우드 모멘텀 강화 기대가 이어지며 최근 30% 급등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감. 알파벳 (+2.2%)은 BofA의 구글 클라우드·Gemini 성장성 재부각과 TPU 8 칩 공개, Broadcom과의 협력 강화로 AI 인프라 경쟁력 확대 기대가 커지며 오름세를 보임. 애플 (+2.6%)은 UBS의 긍정적 전망과 프리미엄 제품 가격 매력 부각,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 신임 CEO 존 터너스에 대한 기대가 겹치며 상승함. 엔비디아 (+1.3%)는 다수 기관의 공격적 매수와 110억 달러 규모 양자컴퓨팅 기회 부각으로 AI·데이터센터 성장 스토리가 재확인되며 강세를 이어감.

강력한 펀더멘털

GE 버노바 (+14%)는 EPS·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어닝 서프라이즈'와 가이던스 상향, Prolec GE 인수에 따른 45억 달러 세전 이익 반영 기대가 겹치며 급등함. 암 홀딩스 (+12%)는 CEO 르네 하스의 소프트뱅크 그룹 인터내셔널 추가 리더십 선임으로 모회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기대가 커지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함. 마스코 (+11%)는 1분기 실적 '더블비트'와 강한 배관 제품 수요, 2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확대에 힘입어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8.5%)는 AI 메모리 수요 급증, 중국 수출 제한 법안 지지에 따른 미국 내 정치·정책 수혜 기대, 골드만삭스의 EPS 605% 성장 전망 등이 맞물리며 반도체 업종 내에서 돋보이는 강세를 이어감.

신재생에너지 강세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다코 뉴에너지(+16.5%), 징코 솔라(+11.2%), 캐나디안 솔라(+8.8%) 등 태양광 관련주가 강세를 보임. 이에 Invesco Solar ETF(TAN)도 4% 넘게 강세를 보임. 중국의 태양광 패널 수출은 지난 3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수요가 여전히 견조함을 증명.

마리화나, 암호화폐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마리화나(대마초)에 대한 규제 약물 등급을 완화(1등급 → 3등급)할 것이란 보도에 관련주가 급등함. AdvisorShares Pure US Cannabis ETF의 주가는 거의 20% 상승하였는데, 과도한 변동성으로 인해 거래가 중단된 이후 2025년 12월 16일 이후 최대 일중 상승률을 기록함.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각각 7만 8천 달러, 2천 4백 달러를 회복하자 스트래티지(+9.39%), 코인베이스(+5.25%) 등 관련주가 강세를 보임.

시간 외 흐름

IBM(-6.40%)은 실적 서프라이즈와 함께 2026년 회계연도 매출 전망치를 컨센서스 대비 5%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I와의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 속에 약세를 보인 반면, 테슬라(+3.73%)는 시장 예상을 상회한 1분기 실적 발표. 전기차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세 전망하며 2분기 연속 시장 예상을 상회. 또한 스페이스x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채 금리 거의 변동 없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31로 거의 보합권을 유지함.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휴전 연장과 연준 의장 후보 워시의 다소 매파적 발언이 맞물리며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짐. 영국 10년물은 4.91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높은 인플레이션과 추가 금리인상 기대를 반영함. 독일 10년물은 3.02로 ECB의 제한적 추가 인상 전망 속에 3%대 초반에서 등락함.

달러 소폭 상승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인덱스가 98.62로 하루 0.2%대 상승하며 중동 리스크와 연준의 매파적 기조에 힘입어 강세를 보임. 유로/달러는 1.17로 조정 받으며 주간 기준 약세를 이어갔고, 엔/달러는 159.43으로 BOJ의 완만한 정상화 전망 속 엔화 약세가 지속됨. 원/달러는 1480.33으로 소폭 하락하며 일부 차익 실현과 포지션 조정이 나타났으나, 여전히 달러 강세·유가 상승 부담이 상존함.

유가 상승

상품시장에서는 WTI가 배럴당 92.94로 하루 3.6% 급등하며 이란 인근 해역 선박 피격 등 공급 차질 우려를 강하게 반영함. 브렌트유도 101.74로 3%대 상승해 100달러를 상회했고, 천연가스는 2.71로 0.6% 올라 생산 감소와 LNG 수출 증가에 지지를 받음. 안전자산 금은 4739.75로 0.4% 상승, 은은 77.70으로 1.4% 오르며 중동 긴장과 연준 리스크를 반영했으나, 분쟁 발발 이후 누적 조정 폭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임. 구리는 6.13으로 2.1% 상승, 중국 재고 비축과 생산 조정 기대가 가격을 지지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